

# K-TP 인사이드

VOL. 제3호 | 발행일 2026년 10월 10일

## 지역기업의 AI 대전환, 기술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들

- AI 도입에서 데이터·업무·의사결정의 전환으로 -

조현보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現 포항시AI추진단 단장)



### 요 약

**“AI는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옮겨 심는 것이다.”**

- 지역기업의 AI 대전환은 어떤 AI 솔루션을 도입했는가보다 AI를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에 얼마나 깊이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
  - 기업의 AI 활용은 대화(Chatbot) → 분석(Analyst) → 실행(Agent)의 3단계로 발전
  - 단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통합, 기업의 지식과 맥락, 시스템 권한과 승인체계의 중요성 증대
- 기업이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는 학계 AI와 산업 AI, 기업 문화와 AI 문화, 도메인 역량과 AI 역량, 수집된 데이터와 실제 쓸 수 있는 데이터 사이의 네 가지 간극 존재
- 지역 혁신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간극을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간극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실증환경, 사람과 신뢰, 기업 지식, AI-ready 데이터라는 공통 기반을 제공하는 것
- 지역기업의 AX는 거대한 AI 플랫폼 구축보다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현장 문제 한 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 문제 선정 → KPI와 베이스라인 정의 → 데이터 연결 → AI Agent PoC와 Human-in-the-Loop → 효과 검증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업 내부에 AI 활용 역량 축적 필요
- 궁극적으로 지역의 AI 전환은 기술 보급사업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관점이 필요
  - 지역 혁신기관은 AI 솔루션의 중개자를 넘어,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인재·기업 지식·신뢰체계·공동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산·학·연·관을 연결하는 ‘지역 AX 인프라’로 역할 전환 요구

## 01 왜 지금 지역기업의 AI 인가

### ■ AI 확산은 지역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 AI의 확산 속도는 과거의 범용기술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 사용자 1억 명 도달까지 전화와 인터넷이 수십 년에서 수년을 필요로 했던 반면, ChatGPT는 출시 후 약 2개월 만에 같은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6년 7월 13일 스탠포드 디지털경제연구소(Stanford Digital Economy Lab)가 발표한 공동성명 「We Must Act Now」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한 200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AI 연구자가 서명한 이 성명은 향후 10년 내 AI가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규모의 경제적 전환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라는 위험과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기회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 주목할 점은 이 성명이 특정 정책 수단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가 생산성과 번영을 넓힐지, 격차를 확대할지는 기업의 대응과 제도·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 ■ 변화는 생산 현장보다 사무실에서 먼저 온다

-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분석, 코딩처럼 컴퓨터 앞에서 수행하는 업무부터 AI가 빠르게 대체·보완하고 있다.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기보다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Task) 중 반복적이고 규칙화 할 수 있는 부분부터 AI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대체보다 업무 재설계의 문제다. 같은 직무 안에서도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간 격차보다 기업 내부의 격차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제조기업의 AI를 반드시 생산설비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다. 문서·품질분석·구매·생산계획 등 관리·간접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AI 활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 ■ 정책 환경은 갖춰졌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0월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통해 총 1만 2,000개의 AI 중심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1% 수준에서 10%까지 높이고, 제조AI 전문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며 AI 활용을 통해 산업재해율을 20%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AI 전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조AI 24」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 예산도 뒤따랐다. 2026년 중기부의 AI 관련 예산은 약 7,992억 원(비R&D 6,718억 원, R&D 1,274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조 현장과 지역 산업의 AI 대전환에 2,437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1,619억 원 증가했다.

-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에 490억 원이 편성되면서, 지원의 무게중심은 개별 기업에서 공급망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기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 ■ 그러나 관건은 지역의 수용 역량이다

- 문제는 돈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10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 도입의 장애 요인은 초기 비용 부담 44.2%, 인력 부족 20.5%, 전략 부재 14.9%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위와 같은 정책 확대로 상당 부분 완화되는 방향이지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력과 전략의 공백은 예산 집행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다.
- 과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설비와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미 남겼다. 결국 지역기업의 AX를 ‘몇 개 기업에 AI를 보급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AI를 활용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며, 어디까지 판단과 실행을 맡길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AI 활용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02 지역기업의 AI 수준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 ■ 같은 AI라도 질문이 다르면 만들어내는 가치가 다르다

- AI 활용 수준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도구를 샀는가보다 어느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는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AI 수준을 결정한다.

[표1] 기업의 AI 활용 3단계와 단계별 지원 과제

| 단계    | AI 역할      | 제조업 질문의 예                             | 기업의 준비과제       | 지원 포인트                      |
|-------|------------|---------------------------------------|----------------|-----------------------------|
| 1. 대화 | AI Chatbot | “수입검사 부적합 처리 규정에 따른 1차 조치를 요약해 줘.”    | 사내 지식 정리       | 업종별 문서·지식 정리<br>템플릿         |
| 2. 분석 | AI Analyst | “협력사 부품의 치수 산포가 조립 불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줘.” | 데이터 연결<br>(통합) | MES·ERP 연계 표준,<br>데이터 품질 진단 |
| 3. 실행 | AI Agent   | “해당 로트를 출고 정지하고<br>시정조치 요청을 준비해 줘.”   | 시스템 권한·승인      | 권한·승인 설계 가이드,<br>보안 검토      |

-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면 데이터 통합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시스템 권한과 승인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LLM을 쓰더라도 1단계 질문만 던지는 기업과 3단계 질문을 던지는 기업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AI 모델은 3단계 모두를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 레거시 시스템과 AI 에이전트는 서로를 보완한다

- ERP·MES의 강점은 데이터 신뢰성, 추적성, 권한관리, 규정 준수다. 반면 사전 정의된 화면과 분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에 답하려면 별도의 IT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AI 에이전트는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정형·비정형 정보를 함께 다루는 데 강하다. 대신 환각(Hallucination)과 잘못된 실행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결론은 ‘레거시를 걷어내라’가 아니라 ‘레거시 위에 질의·추론 계층을 얹어라’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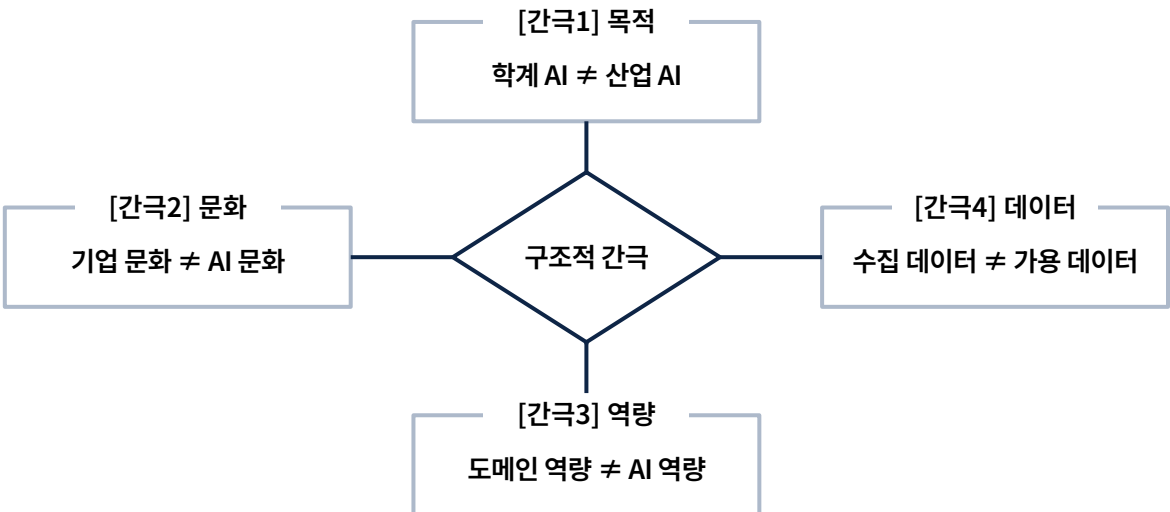
■ AI 에이전트는 ‘아는 체하는 신입사원’이다

- 에이전트는 한 문장의 지시를 여러 작업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지만 기업의 사정과 맥락을 모르면 엉뚱한 답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기업은 에이전트에게 (1) 용어, (2) 데이터, (3) 지표, (4) 기준과 절차, (5) 권한과 형식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외부 컨설팅 산출물로 한 번 받아오는 문서가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지식 자산이며, 사실상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작업지침서(SOP)다. 단, 결과 검토와 최종 승인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 결국 문제는 AI를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문서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정보를 AI가 이해하고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질의·추론 계층’ 역시 데이터 연결과 함께 이런 맥락 정보의 정리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03 무엇이 그 발전을 가로막는가

■ 기업의 AI 활용 3단계 이행 과정의 4대 구조적 간극

- 기업이 앞에 AI 활용 수준의 3단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구조적 간극을 만나게 된다.



[그림1] AI 활용 3단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4대 구조적 간극

## 1) [간극 1] 학계 AI ≠ 산업 AI

- 학계에서는 정제된 벤치마크 데이터로 모델의 정확도와 성능을 비교하고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목적은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이즈와 예외가 많은 실제 데이터로 수율·품질·납기·비용 같은 운영 KPI를 개선하는 것이다.
- 따라서 산업 AI에서는 정확도 몇 %를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현업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ERP·MES·설비와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분포가 변해 성능이 떨어지는 드리프트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결국 연구실에서 성능이 좋은 AI를 현장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와 제약조건을 중심으로 AI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간극 2] 기업 문화 ≠ AI 문화

- 특히 제조업은 오랫동안 변수를 제거하고 공정을 표준화해 동일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좋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반면 AI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찾고, 작은 실패와 수정·재학습을 반복하면서 성능을 높여가는 기술이다.
- 이 차이는 AI 도입 과정에서 쉽게 충돌한다. AI 개발자에게 95%의 정확도는 상당히 좋은 결과일 수 있지만, 현장 엔지니어에게는 “20번 중 한 번은 틀리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품질 판정이나 출고, 설비 제어처럼 오류의 비용이 큰 업무에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가 더욱 커진다.
- 따라서 모든 판단을 처음부터 AI에 맡기기보다 추천·분석부터 시작해 사람이 결과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Human-in-the-Loop 구조를 운영하면서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AI 문화란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아니라, 통제된 범위 안에서 실험하고 검증하며 개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

## 3) [간극 3] 도메인 역량 ≠ AI 역량

- 현장의 전문가들은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AI가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요즘 이 설비가 이상하다”, “이 협력사 물건을 쓰면 가끔 수율이 떨어진다”처럼 경험과 맥락이 담긴 언어로 문제를 설명한다.
- 반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예측하거나 판단할 것인지, 어떤 KPI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반대로 AI 전문가들은 모델과 데이터 분석에는 익숙해도 공정의 제약조건이나 품질 판정의 실제 기준, 현장 데이터가 생성되는 맥락까지 알기는 어렵다.
- 이 때문에 현장에는 중요한 문제인데 AI 과제로 정의되지 못하거나, 기술적으로 흥미롭지만 기업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4) [간극 4] 수집된 데이터 ≠ 쓸 수 있는 데이터

- 많은 제조기업은 이미 ERP·MES·설비·품질시스템 등을 통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 그러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과 AI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측과 이상치가 많거나 필요한 라벨이 없고, 같은 제품·설비·작업자를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코드로 관리하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부터 어려워진다. 날짜와 시간 기준이 다르거나 수작업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많아도 분석 신뢰도가 떨어진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의 의미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다. 불량이라는 결과는 남아 있어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당시 어떤 공정 변화가 있었는지, 작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같은 맥락은 사람의 경험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데이터는 양이 많아도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04 지역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 4대 간극 해소를 위한 지역 혁신기관의 4대 과제

- 기업이 AI 활용의 3단계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네 가지 간극이라면, 지역 혁신기관의 역할은 각 간극을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해결하지 않도록 공통의 역량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 따라서 지역의 AX 정책 역시 AI 솔루션을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가보다, 기업이 이 네 가지 간극을 얼마나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1) [과제 1] 산업 AI : 모델 도입이 아니라 현장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라

- 학계 AI와 산업 AI의 간극을 줄이려면 지원의 출발점을 기술이나 솔루션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반복적으로 겪는 고질적 문제와 개선할 KPI를 먼저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와 AI 기술은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한다.
- 지역기업의 AX는 거대한 AI 플랫폼 구축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문제 선정 → KPI와 베이스라인 설정 → 데이터 연결 → AI PoC → Human-in-the-Loop 검증 → 효과 측정의 과정을 반복하고, 성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확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패 비용을 낮추면서 조직 내부에 데이터 연결, 질문 설계, 검증과 승인 경험을 동시에 축적하게 한다. 작은 성공을 반복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중소 제조기업에 적합한 AX 경로다.

### 2) [과제 2] HX와 신뢰 : 사람과 AI가 함께 판단하는 방식을 설계하라

- 기업 문화와 AI 문화의 간극은 교육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구성원이 AI의 결과를 이해하고 검증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방식과 신뢰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 처음부터 모든 판단을 AI에 맡기기보다 추천과 분석부터 시작해 사람이 결과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Human-in-the-Loop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중간관리자를 AI로 대체되는 대상이 아니라 현장의 맥락을 제공하고 AI의 결과를 검증하는 핵심 역할로 재정의해야 한다.
- AX가 ‘무엇을 도입했는가’의 변화라면 HX(Human Transformation)는 ‘사람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의 변화다. 개별 중소기업이 이를 각자 설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표준 가이드와 공통 규정·계약서·보안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과제 3] AI Translator와 기업 지식 : 현장의 암묵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라

- 도메인 역량과 AI 역량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은 두 영역의 언어를 연결하는 AI Translator다. 생산·품질·설비·구매 등 현장의 문제를 KPI로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AI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며, AI의 결과를 다시 현업의 의사결정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 AI 전문가를 제조 전문가로 만드는 것보다 제조 전문가에게 AI를 가르치는 편이 빠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양성도 AI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의 중심 교육보다, 현업 핵심인력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자사의 문제 한 건을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과제 4] AI-ready 데이터 : 데이터를 더 모으지 말고 연결하고 맥락화하라

- 수집된 데이터와 실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집하는 것’에서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데이터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 ERP·MES·설비·품질시스템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 제품·설비·작업자의 식별체계와 시간 기준을 맞추며, 결측·이상치와 라벨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왜 그런 판정을 했는지, 당시 어떤 변화와 조치가 있었는지 같은 의사결정 맥락도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 데이터 관리는 일회성 정제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장과 설비, 원재료가 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모델 성능과 데이터 드리프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재학습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은 개별기업이 각각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 진단, 표준화, 연결, 품질관리와 재학습 인프라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 (사례) 포항 — 4대 과제를 하나의 지역 AX 실행체계로

- 포항시는 2026년 3월 1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포스텍·한동대·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테크노파크·포항소재산업진흥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등 지역 주요 산학·연·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같은 날 ‘산업 AX 대전환 및 차세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되었다. 추진단은 지역 AI 전환 실행방안, RISE 연계 인재양성, 국책과제 발굴을 함께 논의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 출범 이후의 전개가 더 시사적이다. 2026년 5월에는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마음AI·뉴로메카·한국피지컬AI협회·포스텍·한동대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데이터팩토리」 구축 협약이 체결되었다. 로봇과 설비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각·언어·행동(VLA) 데이터를 생성·수집·가공하는 개방형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데이터 인프라를 지역이 공동으로 갖추는 전형적인 사례다.

## 05 지역의 AI 전환은 기술사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다

### ■ 질문을 바꿔야 한다

- 잘못된 질문은 “AI가 내 일을 대체할까”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AI가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될 때 무엇이 더 귀해질까”이다. 지역기업의 경쟁자는 AI가 아니다. AI를 도구로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연결하며,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다른 기업이다. 경쟁의 기준이 이미 바뀌고 있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 따라서 지역기업의 AX도 어떤 AI 솔루션을 도입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AI를 활용해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며, 어디까지 판단과 실행을 맡길 수 있는가이다. 대화(Chatbot)에서 분석(Analyst), 실행(Agent)으로 올라갈수록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 기업의 지식과 맥락, 사람의 역할, 권한과 신뢰체계가 중요해진다.

### ■ AI는 화면 밖으로 나온다

- 앞으로 AI는 더 오래 생각하고(추론), 직접 실행하며(에이전트), 로봇·비전·자율물류·설비제어와 결합해 화면 밖으로 나올 것이다. 제조업에서 Physical AI가 본격화되면 AI는 ‘답하는 시스템’에서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러나 Physical AI 시대의 준비가 반드시 로봇과 첨단설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품질분석·구매·생산계획 같은 사무·관리 영역에서 AI Agent와 Human-in-the-Loop를 경험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이 AI에게 문제를 맡기고, 결과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조직은 ‘AI와 협업하는 근육’을 기르게 된다.

### ■ AX의 완성은 HX다

- AI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평준화될 것이다. 같은 모델과 비슷한 도구를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기술을 얼마나 깊이 일하는 방식에 녹여내는가이다. 현장의 문제를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 AI의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사람, 경험과 의사결정의 맥락을 조직의 지식으로 남기는 사람이 경쟁력을 만든다.
- 이것이 Human Transformation(HX)가 필요한 이유다. AX가 ‘무엇을 도입했는가’를 바꾸는 것이라면 HX는 ‘사람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묻는다. AI가 더 많은 분석과 실행을 맡을수록 사람의 역할은 직접 답을 만드는 것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AI가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며, 맥락과 책임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이동한다.
- 지역의 역할도 이 관점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혁신기관은 AI 솔루션의 중개자를 넘어 기업이 현장의 문제를 AI로 풀어보고, 실패에서 학습하고, 사람의 역할과 업무방식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학·연·관을 하나의 실행체계로 연결하는 ‘지역 AX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지역의 AI 전환은 기술 보급사업을 넘어 산업정책이어야 한다. AI 대전환의 성패는 어떤 모델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되었는가로 판명될 것이다. 결국 AX의 완성은 HX다.

**[참고문헌]**

- [1] 중소벤처기업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제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5. 10. 24.
- [2]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고」 및 2026년 AI 분야 예산(약 7,992억 원) 자료, 2025. 12. ~ 2026. 2.
- [3]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AI 도입 의견 조사」, 2025. 10.
- [4] Stanford Digital Economy Lab, 「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2026. 7. 13.
- [5] Anthropic, 「Anthropic Economic Index Report」, 2026. 3. / 2026. 6.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6. 8. 20.
- [7] 포항시,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 출범 및 산업 AX 대전환 업무협약」, 2026. 3. 12.
- [8]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피지컬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및 피지컬 AI 데이터팩토리 구축」, 2026. 5. 12.

**[ About K-TP 인사이트 ] “현장을 보고(Sight), 시대를 읽어(In-sight), 지역의 미래를 제시한다.”**

‘K-TP 인사이트’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Insight)을 제시하는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의 월간 정책 이슈브리프입니다.